

내일

2025 vol-6



녹음 속 다져지는 결심 단단해지는 우리의 결의

푸른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여름이 우리 결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불쾌지수가 올라가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란 걸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하루하루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15대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역시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보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임하고 있으며
굳건한 의지로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알지만
‘거침없는 실천, 중단없는 전진’이라는
슬로건이 부끄럽지 않게
끝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도심 속 열기에도 지치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여
함께 단결하며 투쟁해
희망의 결실을 꿈꿔봅시다.

KT노동조합 제15대 위원장

김민준

04	인생 ‘힘’ 충전 시리즈 〈결심〉	물망초심 (勿忘初心)
06	테마 매뉴얼	세상을 바꾼 위대한 결심 로자 파크스 이야기
08	거침없는 실천	2025년 단체교섭 전담반 출범 ‘내, 일’의 승리를 위한 집중!
12	노동법 안내	함께, 대화하고, 행동하자 ‘노동3권’
14	함께 만드는 변화	KT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16	나눔 플러스	카자흐스탄에 뿌리내린 상생의 미래 UCC 글로벌 봉사활동
20	내일을 여는 가치	송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2025년 KT노동조합 합동추모제
22	이슈리포트	AI가 해 주는 노동법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24	내, 일 동행	가치 없는 노동은 없다
26	KTТУ NEWS	
30	현장의 목소리	

물망초심(勿忘初心)

: 처음에 품고 다짐한 마음을 잊지 않으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진정한 결심은 한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한 단단한 의지이며,
어려움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신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종종 위태로워집니다.
일상의 바쁨에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주저앉으면
처음 세웠던 다짐은 희미해집니다.

‘물망초심(勿忘初心)’
처음의 결심을 잊지 말라는 이 가르침은
의지를 지속하는 힘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심은 반복해서 다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다시 세우고,
실패할 때마다 재정비하며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처음의 결심을
다시 꺼내어 되새겨 보세요.
그때의 간절함과 목표를 마음에 새기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세요.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들에게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
목표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결심 로자 파크스 이야기

1955년 12월 1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의 한 시내버스 안, 평범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의 작은 결심이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어느 때와 같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42세의 재봉사 파크스는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사의 명령을 거부했다. “단지 피곤해서가 아니라, 더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파크스의 이 한마디는 당시 미국 남부에 만연한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는 곧 미국 시민권 운동의 도화선으로 이어졌다.

당시 미국 남부는 ‘짐 크로 법’에 따라 인종 분리 정책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와 식당, 심지어 음수대까지 백인과 흑인이 따로 사용해야 했다. 버스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 백인 전용 좌석이 다 차면 흑인 승객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이날 파크스는 흑인 전용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백인 승객이 많아지면서 버스 운전사로부터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묵묵히 앉아 있었고 결국 체포되었다.

이 소식은 몽고메리 흑인 사회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파크스의 체포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았고, 오랫동안 쌓여 온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터지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중심으로 흑인 사회는 곧바로 버스 보이콧 운동을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무려 381일 동안 이어졌다. 흑인들은 비오는 날씨에도 걷거나 카풀을 하며 차별에 맞서 연대했다. 단순히 교통수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천이자 불의에 맞서는 ‘조용한 변화’였다.

로자 파크스의 결심으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결국 연방 대법원의 ‘버스 내 인종차별 위헌 판결’로 이어졌다. 또한 그의 용기가 시발점이 되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리더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 제정의 토대가 되었다. 로자 파크스의 작은 결심이 미국 시민권 운동의 시작점이자 전국적인 확산의 계기가 된 것이다.

파크스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는 이유는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날도 일상적인 퇴근길이었다. 하지만 불의의 상황에서 내린 결심은 시대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환경 보호, 성평등, 사회 정의를 위한 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촛불집회는 평범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불의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처음에는 소수의 참여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가 이어지면서 결국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파크스의 용기는 한 사람의 결심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쇄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로 인한 변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일상에서, 어떤 결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파크스가 전한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울림을 주며,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파크스의 용기는 한 사람의 결심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쇄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

파크스가 전한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울림을 주며,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로자 파크스

(Rosa Parks)

출생/사망	1913-2005(92세)
별명	민권 운동의 어머니
중요 사건	1955년 12월 1일, 몽고메리 버스에서 자리 양보 거부
영향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381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부상
성과	버스 내 인종차별 철폐, 미국 민권 운동의 전환점
의의	개인의 결심이 사회 변화를 이끈 상징적 사례

2025년 단체교섭 전담반 출범 ‘내, 일’의 승리를 위한 집중!

KT노동조합이 2025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담반을 본격 가동했다. 조합원들의 더 나은 근로조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에 돌입한 것. 올해 전담반은 노동계 현황 분석부터 타사 협상 사례 연구, 현장 의견 수렴까지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섭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단순한 안건 발굴을 넘어 실천 대응력과 조직적 협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이번 준비 과정은 어느 해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

1차 전담반 | 단체교섭의 방향성을 세우다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KT노동조합은 3월 31일부터 4박 5일간 1차 전담반을 출범시켰다. 이번 1차 전담반의 핵심은 제15대 집행부 공약사항 중 2025년 단체교섭 실천 로드맵 수립과 올바른 방향성 설정에 있었다. 교섭위원들은 KT의 현안 이슈 점검과 함께 노동계 동향 분석, 타사 협상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협상 전략을 세밀하게 토론했다.

특히 2025년도 조합원 설문조사 항목 정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교섭안에 반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상호 열띤 논의를 통해 교섭위원의 역량 확보에도 주력했다. 이는 실천 대응력과 조직 내 세대 간 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2

2차 전담반 | 핵심 공약을 구체적 안건으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된 2차 전담반은 제15대 집행부 핵심 공약 실천과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각 안건별 핵심 키워드 작성에 전념하며, 4박 5일간 단체교섭 방향성 확립 및 주요 안건별 토론과 회의를 통해 교섭위원들의 발표력 향상에 힘썼다.

특히 상호 토론과 모의교섭을 통해 실천에서의 대응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사를 설득하고 협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와 당위성을 확보하여, 예상되는 사측의 시나리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마련했다.

3

3차 전담반 | 실전처럼 준비하는 모의교섭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이행된 3차 전담반에서는 단체교섭 요구안의 방향성 정립과 안건 상정 준비를 본격화했다. 안건별 방향성 설정과 그에 따른 당위성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단체교섭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조합원 의견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해 핵심 키워드 작성에 매진했다.

교섭위원들은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한 자료 분석으로 당위성을 마련했다. 실전 대비를 위한 모의교섭을 통해 전략과 역량 향상에 힘쓰며, 교섭이 임박할수록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며 만전을 기해 준비했다. 이는 과거의 협상 태도를 벗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수치를 통해 회사를 설득하고 공감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둔 변화의 일환이다.



‘조합원 만족’ 목표로 한 교섭 준비

한편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2025년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현장 의견 조사 및 건의사항 수렴이 실시됐다.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을 전국 9개 지방본부와 지부 사무실에 파견해 조합원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하게 도출된 사항을 각 분야별로 취합하여 단체교섭 안건에 반영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교섭위원들에게 “이번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조합원들 목소리에 열심히 귀 기울여 고충을 알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협상 전략 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단체교섭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단체교섭 전담반의 활동은 단순한 준비를 넘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교섭의 중심에 세우고, 치밀한 전략과 실전 대응력으로 무장한 시간이다. 전담반 교섭위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조합원들의 더 나은 ‘내, 일’을 실현하는 빛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2025년 단체교섭 요구안

구분	단체교섭 안건
임금	① 임금인상 (정률 6.3%)
	② 성과급의 기본급 산입
	③ 명절상여금 신설
인사	④ 승진제도 개선
복지	⑤ 휴대폰지원 제도 개선
	⑥ 자기계발출장 지원 개선
	⑦ 통근보조비 현실화(6,000원 → 9,000원)
	⑧ 정년퇴직자 지원제도 개선
고용안정	⑨ 정년연장
	⑩ 임금피크제 폐지

함께, 대화하고, 행동하자 ‘노동3권’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처럼 노동자의 기본권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보장한다.

이제 그 권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몫이다.



함께할 권리, ‘단결권’

단결권이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유럽의 산업혁명 시기, 지속 자행된 노동자를 향한 부당한 대우에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기업을 상대하기 시작했던 게 그 출발점이다. 단결권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제87호·제98호 등에서도 규정된 만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제헌 헌법에 처음 규정됐고,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점이었던 1987년 6월 항쟁 이후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작용하기 시작했다.

단결권은 노동3권의 바탕이 된다. 교섭을 진행하고 쟁의행위를 벌이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단결권 침해 행위는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국내 실정은 비교적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일수록 법의 사각지대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2024년 국제노동기구는 이들이 단결권을 더욱 보장받아야 한다고 국내 노동시장을 지적한 바 있다.

대화할 권리,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임금, 복지 등 노동조건 전반에 대해 사측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권리다. 노동자가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셈이다. 노조법 제30조는 성실교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기업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기업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라면, 대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자율적 결정이 불가능할 때는 조합원이 과반수가 넘는 노동조합에 교섭권이 돌아간다. 2024년에는 대표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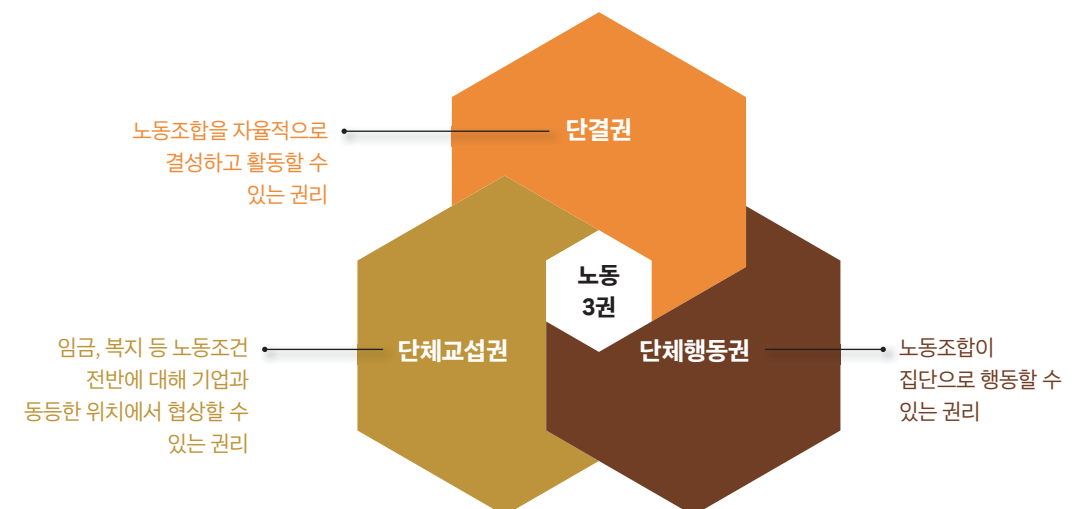
단체교섭은 임금협상과 단체협상,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협은 말 그대로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교섭이고, 단협은 임금을 포함해 노동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협상하는 자리다. 체결된 협약에는 노조법 제32조에 의해 최대 2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관행적으로 매년 진행되는 임협에 비해 단협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행동할 권리,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이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노동자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단체행동권은 무조건으로 행사할 수 없다. 먼저 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아야 한다. 이후 노동조합 총회를 열어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행하고, 과반의 찬성표가 나왔을 때 쟁의행위 요건이 갖춰진다.

위와 같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단체행동은 불법이 된다.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업무방해 등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를 줄 수 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기를 파괴하는 등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또한, 통신을 포함해 철도, 수도, 전기, 의료 등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반드시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공백을 채울 조합원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3권





KT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노동권 수호’ ‘사회대전환’ 의지 표명



KT노동조합이 제13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120여 명 조합간부 참석, 민주주의 수호 의지 천명

지난 5월 1일 오후 2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는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해 수도권 5개 지방본부 지부장급 이상 조합간부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자와 국민이 함께 연대와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기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노동과 민생의 승리, 그리고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절이 가진 의미와 참뜻에 대해 생각해보니 더욱 새로운 감회를 느낀다”며 “차디찬 추위 같은 고난을 겪어도 함께 단결하고 투쟁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를 탄압하려 하고 시민들의 민생을 외면하는 악행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전국 곳곳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민주주의 수호를 외쳐 승리의 봄을 맞이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별과 인종, 학력과 지역, 종교와 성적 지향, 세대라는 연대의 기초를 통해 차별과 혐오, 배제와 탄압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한국노총은 선거 이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펼쳐왔다. 정책 협약에는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계는 국민주권정부와 협력해 노동 환경 개선과 사회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개정,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중간착취 없는 일터 조성 등 핵심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고,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지를 표명한 자리였다.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노동계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카자흐스탄에 뿌리내린 상생의 미래

UCC 글로벌 봉사활동



카자흐스탄 탈디코르간 고령인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KT노동조합과 회사가 주도하는 세계 최초 노사공동 나눔협의체 UCC(Union Corporate Committee)의 글로벌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독립운동 유공자 정신 계승과 고령인의 역사적 뿌리를 되새기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상생 모델의 실현을 위한 뜻깊은 여정이었다.

‘손끝에서 피어난 희망’ 주거환경 개선과 생필품 나눔



중앙아시아 대평원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봉사단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려인 취약가구 8곳을 직접 찾아가 페인트칠, 창문 설치, 담벼락 수리, 집안 청소 등 꼼꼼한 봉사를 펼쳤다. 특히 보훈부와 협업해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건국훈장 독립장)의 외증손녀인 박릴야 페트로브나(79) 씨 자택을 찾아 노후화된 천장 누수, 바닥, 창호, 싱크대 등을 개선했다. 이 활동은 민관이 협력해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생필품 전달 활동의 의미 깊었다. 3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감자, 밀가루, 설탕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 또한 멀리 떨어져 소식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고려인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위로잔치를 마련해 정서적 연대를 다지며, 현지 사회에 큰 감동을 선사했다.



‘미래를 여는 교육 인프라’ KT IT아카데미와 장학 지원

봉사단은 고려인 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탈디코르간 소재 폴리텍 컬리지에 설립한 ‘KT IT아카데미’를 중심으로 IT 교육과 한글강좌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어 수업은 1개 학급 30명 내외로 운영, KT 노사는 노트북, 복합기 등 기자재 기증과 학점 이수제와 연계한 총 1년간의 한국어 수업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그간 KT IT아카데미의 성과를 격려하고 학교 발전 기금과 우수학생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이야말로 고려인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KT IT아카데미는 단순히 언어와 기술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고려인 후손들이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교육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뿌리를 기억하는 마음’ 역사의식 강화와 민간외교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고려인의 역사적 뿌리를 되새기는 시간이 의미 깊었다. 봉사단은 고려인 최초 정착지인 우쉬토베를 방문해 참배하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했다. 독립운동 유공자의 정신을 계승하고 고려인들의 험난했던 이주사를 기억하며, 우리 민족의 끈끈한 역사를 되돌아보았다.

현지 고려인협회와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멀고도 낮은 중앙아시아에 KT노사가 직접 방문해 현대의 손길을 건넸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간기업 노사가 주도하는 이러한 활동은 정부 차원의 외

교를 보완하는 실질적 민간외교로서 한국-카자흐스탄 양국 간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펼쳐진 UCC 글로벌 봉사활동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서로의 뿌리를 잇고 미래를 함께 그리는 상생의 장이었다. KT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교육·문화 인프라가 개선되고, 고려인 지원을 통한 노사 공동 역사의식 강화와 양국 간의 실질적 민간외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2025년 KT노동조합 합동추모제



우리 KT노동조합의 역사는 수많은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졌다. 그분들의 뜨거운 투쟁 정신과 노동자를 향한 사랑이 오늘날 우리 조합의 든든한 뿌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단결과 투쟁 정신 받들어, 단체교섭 승리 쟁취하자”

KT노동조합은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유토피아 추모관에서故 김낙성,故 김왕찬,故 오용철,故 김양중,故 윤준상 선배열사의 합동추모제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해 9개 지방본부 위원장과 조합간부 90명이 참석해 선배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제는 엄숙한 노동의례를 시작으로 추모자 약력보고, 분향 및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은 한 마음으로 선배들의 넋을 추모했다.

이날 추모제는 KT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다 산화해 가신 선배 열사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계승하는 자리인 만큼, 추모사와 추모시 낭독을 통해 고귀한 뜻을 기렸다. 특히 현장에서 묵묵히 동료들과 함께 걸어오신 선배들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그분들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김인관 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선배 열사들께선 노동자 생존권 운동에 모두 참여하시어 고달픈 현장마다 소리없는 발걸음으로 따뜻한 손길과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셨다”며 “어려움에 처한 동지와 함께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단체교섭 역시, 선배 열사들의 희생과 투쟁 정신을 받들어 임해야 한다”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단결할 때, 단체교섭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노동조합은 열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동 추모관에 추모비를 마련하고, 매년 합동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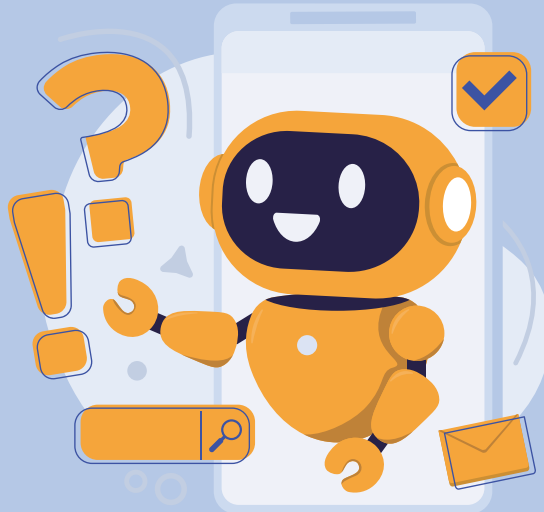
이는 선배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후배들에게 전승하려는 조합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추모제는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길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 선배 열사들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단결과 연대로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야 한다.



AI가 해 주는 노동법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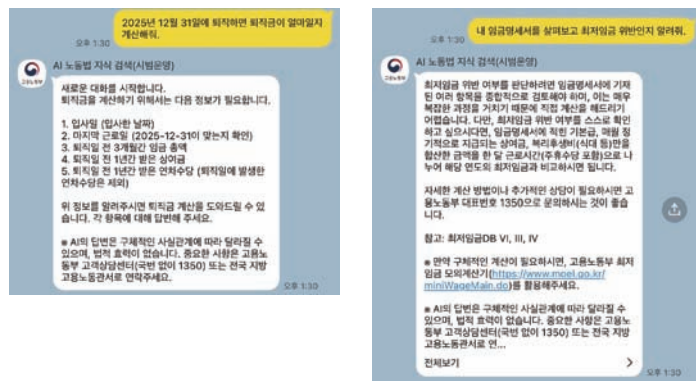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 복잡한 노동법이 어려운 영세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궁금한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법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되어 전문가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나 묻고 답하다

AI를 통한 상담은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과는 다르게 질문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용 방법 또한 간단하다. 먼저 카카오톡 앱에서 'AI 노동법 지식 검색' 채널을 추가한 뒤 채팅창에 노동법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반으로 답변한다. 퇴직금, 임금체불, 근로시간, 실업급여, 임금 등에 관한 법률 정보와 간단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실제 AI 노동법 상담 화면



사용해 본 결과, 질문을 입력하자마자 빠르게 답변이 도착했다. 질문이 모호하더라도, AI가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몇 가지 입력하면 비교적 명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시스템 공개 이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상담의 신속성과 접근성 면에서 5점 만점 중 4.3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I 상담 서비스의 한계점과 과제

반면 AI 상담 서비스에는 한계점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야?', '상사의 폭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에는 '서비스 범위 외의 주제이므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한, 일부 답변에는 'AI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제공되면서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겼다.

이미 국민들이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담 채널이 존재한다는 점도 AI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화상담(1350)과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근로복지공단 역시 1588-0075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관련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활용 범위도 더욱 넓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상담 범위나 정확도 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단계다. AI 상담 서비스는 아직 기존 상담을 대체하기보다,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법 상담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당사자의 상황, 사실관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AI 상담 서비스가 실질적인 상담 도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Tip. 노동법 상담, 어디서 가능할까?

1. 고용노동부 상담

▶ 1350 전화상담(유료) / 인터넷 상담 / 채팅상담(실업급여) 가능

2. 전국 노동청·지청 상담

▶ 전화 및 방문 상담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에서 위치 확인 가능

3. 근로자이음센터 상담

▶ 카카오톡 채널 '노동 SOS' 통해 상담 가능
▶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대상 1668-1007(무료) 전화상담 운영

4. 근로복지공단 상담

▶ 고용·산재보험 관련 상담
▶ 1588-0075 전화상담(무료) / 사이버 고객상담 가능



가치 없는 노동은 없다

영화



인턴

출연 로버트 드니로,
앤 해서웨이
개봉 2015. 9. 24.
장르 코미디

노동이 선사한 제2의 인생

주인공 벤은 은퇴한 시니어다. 퇴직 후 아내를 잃고 공허한 일상을 보낸다. 이때 시니어 인턴을 구하는 한 공고를 발견하고 지원한다. 창업 1년 만에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30세의 젊은 CEO 줄스(앤 해서웨이)가 운영하는 회사다. 그렇게 벤은 70세의 나이로 다시 한번 직장인의 길을 걷는다.

주변인들은 벤에게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이제는 쉴 나이라고, 나이에 맞지 않는 도전이라고. 동료들은 전자기기 사용도 서툴러 하는 벤을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업무도 맡기지 않는다. 시니어 인턴 채용 사실을 몰랐던 줄스 역시 담당자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다. 벤은 회사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는다. 필수 인력은 아닐지라도, 필요한 인력이 되기로 말이다. 바쁜 동료를 대신해 택배를 나눠주고, 인생 선배로서 동료들에게 경험 어린 조언도 건넨다. 작은 일도 성실하게 수행하는 벤을 보며 줄스와 동료들의 눈빛은 따뜻하게 바뀐다.

벤의 삶에도 변화가 생긴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에도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다. 임원으로 재직했던 과거의 영광, 방과 마당이 딸린 주택, 여생을 쉬면서 보내도 부족하지 않은 재산. 남들이 볼 때 노후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이지만, 정작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유는 결국 노동이었다.

노동은 힘들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고, 퇴근은 속박을 벗어나는 해방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일을 하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가치는 분명 존재한다. 동료에게 힘이 됐다는 부듯함, 내가 쌓아온 경험이 의미 있게 쓰인다는 자부심.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 여전히 값지고 가치 있다는 사실 등이다.

누군가는 커피를 내리고, 누군가는 지하철을 운행한다. 흘리는 땀의 총량은 다르지만, 그 무게는 다르지 않다. 영화 <인턴>과 도서 <이번 역은 요절복통 지하철계입니다>를 통해 가장 보통의 자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본다. 다만, 이 이야기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다.

도서



이번 역은 요절복통 지하철계입니다

저자 이도훈
출판 이야기장수
2024. 6. 28.

어두운 지하에서도 조용히 빛나는 사람들

햇빛이 들지 않는 땅속 지하철 플랫폼. 칙칙폭폭 소리와 함께 밝은 빛을 내는 열차가 달려온다. 출근하는 직장인, 캐리어를 든 여행객, 푸른 눈의 외국인 등 열차는 수많은 사연을 싣고 빠르게 달린다.

이 책은 현직 부산지하철 기관사가 열차를 운행하며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일화를 담았다. 기관사 관점에서 썩 유쾌하진 않은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닫히는 문을 열기 위해 우산을 집어넣는 승객, 답다는 민원과 촛다는 민원의 용호상박 싸움 등등.

그런데도 저자는 회색빛 이곳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본다. 모든 승객이 내리고 불이 꺼진 열차는 비상시에 대비해 철해놓은 야광 물질로 밝게 빛난다. 저자는 이를 ‘반딧불이’라 칭한다. 어릴 적 그토록 무서워했던 밤이 반딧불이로 밝게 빛나면 두렵지 않았던 기억처럼, 일터의 힘듦을 잠시 잊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일터를 비추는 건 ‘반딧불이’뿐만이 아니다. 본인과 더불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동료들, 냄새 나는 토사물에도 불평 없이 밝은 미소를 유지하는 미화원, 매일 같이 역에서 승객을 맞이하는 역무원, 지하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이 일터의 빛을 밝힌다.

지하철을 떠올렸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불쾌한 기억이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날을 무탈하게 이용했다. 잘하면 본전이지만, 부족하면 크게 티 나는 일.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 바로 그 노동들이 이 책 속에 그리고 저 깊은 지하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

주요소식

KT노동조합, 제3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KT노동조합은 6월 9일(월)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단체교섭 요구(안) △2/4분기 노사협의회 제출 안건에 관한 사항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단체교섭 요구(안)은 지난 4월에 실시한 현장의견 수렴과 온라인 설문조사에 개진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했고 제2노조의 의견도 참고했다. 또한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일근자의 오후반차 사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반차 (오전/오후) 휴가제도 재도입 △육아기 직원(Dual Work) 필수근로시간 개선 △포상제도 신청 프로세스 개선 등 총 3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KT그룹 노사, 취약계층 한끼 식사 나눔활동 전개



KT그룹 노사가 6월 9일(월), 13일(금) 한끼 식사 나눔활동을 통해 성남지역 취약계층 노인들분들에게 사랑과 온기를 전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KT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해 그룹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수진1동, 상대원1동 복지회관에서 삼계탕을 준비하여 떡과 계절과일 등 간식류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에게는 음식과 생필품도 직접 배달했다.

KT그룹노조협의회, 이재명 후보 공식 지지 선언



KT그룹노조협의회(KT내 20여개 계열사 노조, 이하 그룹노조)는 5월 29일(목)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지 후보로 공식 선언했다. KT그룹노조 김인관 의장(KT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그동안 친노동성향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소년공 출신의 친노동자 후보로 노동존중세상을 앞당기고 이를 완성할 최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KT그룹노조는 이번 대선을 둘러싼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내란세력의 준동으로 혐오와 분열이 가득한 시대를 종결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다할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대한민국 실용적인 리더십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알렸다.

제2차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 개최



KT노동조합은 5월 20일(화), 노동조합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를 열고 현안사항 공유 및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국 9개 지방본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얼마 남지 않은 단체교섭의 준비 현황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조합원들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단체교섭 요구 안건 확정을 위한 현안을 세밀하게 논의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곧 다가올 단체교섭을 위해 전담반 운영 및 현장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등 교섭위원들의 노력을 알고 있다”며 “단체교섭이 임박해 온 만큼 교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 조합원의 절박한 심정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보답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전략을 검토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주요소식

2025년 단체교섭 관련 현장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KT노동조합은 4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3박 4일 동안 2025년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현장 의견을 조사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는 2025년도 전국대의원대회 사업계획 및 단체협약 제10장에 관련하며 2025년 단체교섭 안건 내실화 추구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조합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수렴을 위하여 중앙상무집행위원을 9개 지방본부와 전국 지부로 파견해 조합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지고 다양하게 도출된 사항을 분야별로 취합하여 단체교섭 안건에 반영하고자 했다.

KT노사 공동 광주 고려인 마을 희망박스 전달



KT노사는 4월 15일(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 마을을 찾아 고려인 50가구에 새봄맞이 희망박스를 증정했다. KT UCC 기금으로 마련한 이번 희망박스 전달식은 생필품 및 식료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KT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해 이남권 호남지방본부 위원장, 장병관 상생협력단장, 고려인 마을의 신조야 대표, 이천영 목사 등이 참석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이날 광주 고려인 마을을 둘러본 뒤 마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사회통합과 고려인 문화 이해의 영역을 확장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사업의 실행력과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려인 동포들은 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후손들이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일상생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역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이질감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데 미약하나마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하반기
내일설계휴직
시행 안내

조합원 제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내일설계휴직을 시행합니다.

2025년 2분기
희망퇴직 시행 안내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2분기 희망퇴직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리프레시 휴직 시행

장기근속자의 자기 계발과 재충전을 위한 리프레시 휴직을 하반기에 운영합니다.

현장 우수 기량자 대상
2025년 KT 명장 선발
안내

현장 장기근무자 중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KT명장을 선정했습니다.

2025년 여름 휴양소
운영 및 신청 안내

임직원 휴식을 위한 여름 휴양소를 8월 26일(화)까지 운영합니다.

2025년 5월
성과급 지급 기준 안내

2025년 5월 성과급이 5월 23일(금)에 지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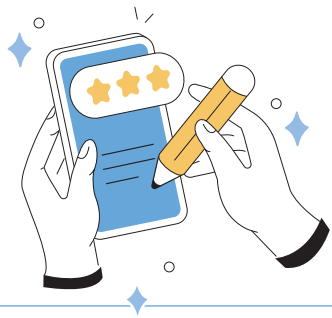
2025년 1차
복지(기여)포인트
지급 안내

2025년 1차 복지(기여)포인트가 5월 2일(금)에 지급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
온누리상품권 지급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 직원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내, 일>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매번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내, 일’의 내용이 더욱 알차지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김홍재

노동조합 소식지 발행에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노동 환경과 권익 향상에
힘써 주십시오.
나병삼

AICT 시대 회사의 전략 방향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노사관계
속에서 노조원으로 가져야 할 책무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보하’ 시대,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박문일

‘아보하’라는 표현을 통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에 더 집중하며 ‘아주 보통의 하루’
속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김나희

‘아보하’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는 것을 추구한다는 소식지를 읽고
깊게 공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평온한 ‘나의 하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일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차다빈

남의 시선보다는 나에게 집중하여 하루 전체의 안정감과 평온함을
추구하는 것. ‘아보하’를 계기로 저는 요즘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이
소식지를 읽는 모든 분들 몸 건강, 마음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주

AICT 시대 노동조합의 과제로 AI 평가 기준에 대한 알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올해 처음 조합 간부를
맡아 전국대의원대회 및 5·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험을 토대로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조합원분들의 ‘아보하’를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권구봉

KTTU
초성퀴즈

동그라미 속 초성과 힌트를 읽고 낱말을 완성해 보세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내, 일>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예 : 노 동 조 합 → 노동조합]
보내실 곳 | m.j.choi@kt.com (최민주 복지국장)

ㄹ ㅈ ㅍ ㅋ ㅅ 미국 버스 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위대한 결심으로 민권운동의 어머니라 불리는 인물은? (6~7 페이지 참조)

ㄴ ㄷ ㅅ ㄱ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 용어들을 아우르는 단어는? (12~13 페이지 참조)

ㅋ ㅈ ㅎ ㅅ ㅔ ㅔ ㄷ ㅋ ㄹ ㄱ KT노동조합과 회사가 주도하는 세계 최초 노사공동 나눔협의체 UCC가 최근
봉사활동을 벌인 나라와 도시는? (16~19 페이지 참조)

kt 임직원
감사 답례품(기프티쇼) 할인 안내

최대할인
10%

임직원님의 애경사를 같이 해주신 분께 답례 시,
조금이나마 편익을 드리고자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쇼)을 할인해 드립니다.

★ 이용 방법 및 절차

· 다운플랜 **홈페이지** (daonplan.com) > **소식** > **회사소식**에 공지 확인

★ 할인 안내 (판매가 금액 합계)

금액대 구간	할인율
3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3%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7%
400만 원 이상	10%

발신번호 별로 할인을 책정하며, 할인율은 상품 판매가
합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초 구매 시 상품 판매가 합계 기준 최소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최초 구매 후 추가구매는 7영업일 내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최초 구매 시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ex) 최초 구매 100만 원 : 5% 할인 적용
→ 추가구매 20만 원 : 5% 할인 적용

추가구매로 인한 누적금액의 합산 할인을 적용은 불가합니다.
ex) 최초 구매 50만 원 : 3% 할인 적용 / 추가구매 150만 원 : 5% 할인 적용
→ 최초 구매 50만 원에 대해 추가 2% 할인 적용 불가

★ 유의 사항

- 해당 기프티쇼는 B2B 프로모션 선물용으로
유효기간은 60일이고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 해당 기프티쇼는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KT멤버십 증복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물용이기에
본인 사용용도로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선택 가능한 상품은 물품교환형입니다.
- 부득이 금액형 또는 상품권 등 일부 상품 선택 시
할인 미적용 및 판매가 합계 시에도 산정 제외
- 신청 시간(영업일 09:00~17:00) 이후 신청 시 익영업일 발송됩니다.

★ 할인 예시

브랜드	상품명	판매가(원)	수량(개)	소계	비고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Tall	4,500원	100	45만 원	커피 1잔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	13,500원	100	135만 원	커피 2잔, 조각 케익 1개
배스킨 라빈스	골라먹는 와썹원	27,000원	30	81만 원	아이스크림 케익
판매가 합계				261만 원	

→ 7%할인 (182,700원)된 금액 2,427,300원을 입금

문의 다운플랜 1577-1555 (ARS 3번)

다운플랜 서비스 안내



장례 서비스

- 상 발생 시 다운플랜(1577-1555/ARS 1번)에 문의해 장례식장 선정 바랍니다.
- 약정금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과 정성이 담긴 장례행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근조화환, 장제용품, 근조기가 제공되는 그룹사가 있으니, 상 발생 시 꼭 콜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웨딩 서비스

- 신랑·신부의 소중한 첫 출발을 위한 토탈 웨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조화환 서비스

- 상 발생 시 장례식장으로 근조화환을 배송하여 드립니다.
(지원되는 그룹사만 해당)



축하화환 서비스

- 웨딩 시 웨딩 행사장으로 축하화환을 배송하여 드립니다.
(지원되는 그룹사만 해당)



근조기 서비스

- 상 발생 시 장례식장으로 근조기를 배송하여 드립니다.
- 근조기는 KT 자산입니다. **장례행사 후 가져가지 마시고 장례식장에 맡겨 주세요.**



장제용품 서비스

- 상 발생 시 장례식장으로 장제용품을 배송하여 드립니다.
(지원되는 그룹사만 해당)

콜센터
(1577-1555)
안내

콜센터 전화 후 ①번

장례 서비스, 근조화환 서비스,
축하화환 서비스, 근조기 서비스,
장제용품 서비스 신청 또는 문의
※ 야간(18시~09시)에는 무인 운영합니다.

콜센터 전화 후 ②번

웨딩 서비스 신청 및 문의

콜센터 전화 후 ③번

회원 가입 및 해지 등
회원관련 일반 문의

헬스케어 서비스 종료 안내

다운플랜에서 부가서비스로 제공되었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이용을 저조**
2024년 5월 23일부로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